**성령님을 통해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나는 마음 속으로 외쳤습니다/ 오럴 로버츠**

​​



주님께서 내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네, 주님.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가진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약간은 알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소유한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너와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더 나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천년 전 내가 열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네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내게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당신께서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 것과

같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곁에 있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 이상으로 너와 가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성령을 통해 바로 네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영과 마음 속에 비춰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오관이 살아나고 온몸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일, 즉 신유사역을 해낼 수 있다!

나 오랄 로버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로써 성령님을 통해 나는 해낼 수 있다!'

라고 나는 마음 속으로 외쳤습니다.

 마2818. 이에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이르시되,

모든 권능(엑소시아, Exousia: 위임 받은 권능)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내게 주어졌느니라

수0105. 네 삶의 모든 날들에 네 앞에 서있을 수 있는 어떤 이도 없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듯이,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도, 너를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니라.

수0107. 오직 너는 강해지고, 매우 용기를 내라, 그러면 내 종 모세가 네게 명했던 모든

 법을 따라 행하려고 네가 지킬 것이니라, 그것으로부터 우측으로나 좌측으로 돌아서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번창할 것이니라,

수0109. 내가 네게 명하지 않았느냐? 강해지고, 용기를 내라, 너는 두려워하지도 당황해

하지도 말라, 이는 네가 어디로 가든,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이라.

 “고통의 풍랑 위를 걸을 때” 오랄 로버츠

Tags

회개 청종 믿음 의심 내주

권위 권세 권능 능력 기적

성령 성령충만 기름부음